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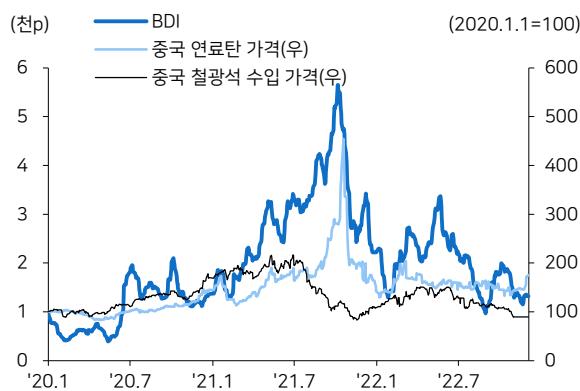
2022. 12. 7 (수)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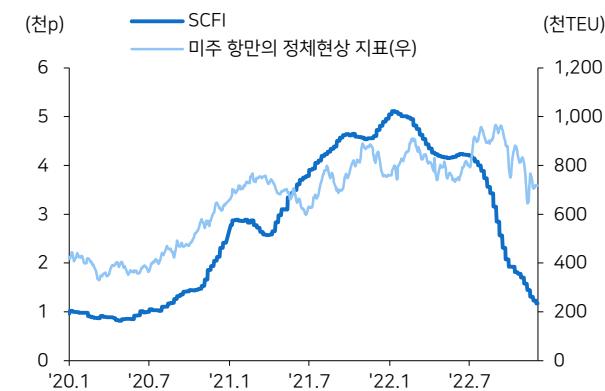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40.0p(+17.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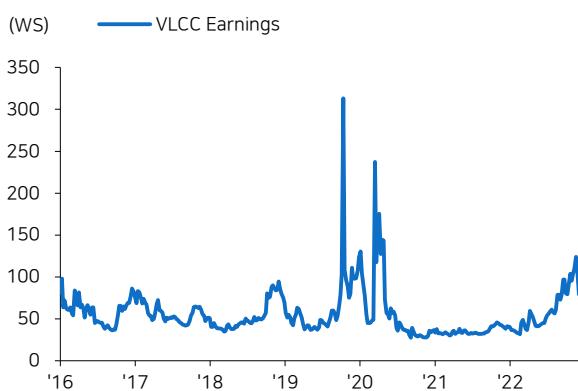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171.4p(-58.5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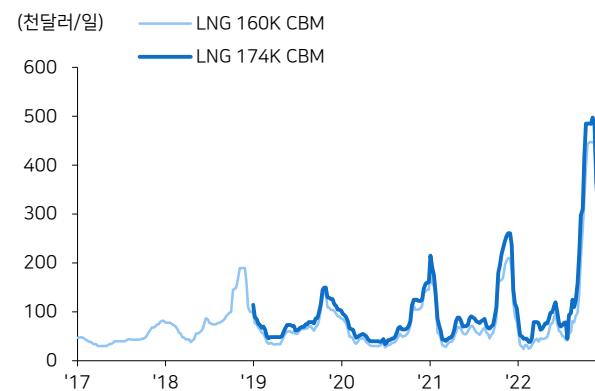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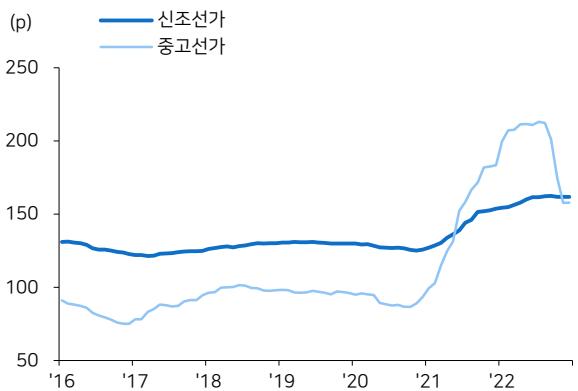
79.6p(-28.0p WoW)



LNG Spot 운임

275.0p(-90.0p WoW)
315.0p(-53.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7p(-0.0p WoW)
157.8p(+0.5p WoW)

항공시장 지표

254.7p(-7.2p DoD)
98.3p(+0.3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aipem to purchase ultra-deepwater drillship from South Korean giant

Saipem이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산토리니 7세대 ultra-deepwater 드릴십 1척을 2.3억달러에 매입했다고 보도됨. 2021년 완공된 산토리니는 현재 Eni에 장기용선되어 미국 걸프만에서 작업 중에 있다고 알려짐. 계약은 2023년 3분기 만료될 예정임. 한편, Saipem은 7세대 드릴십 용선료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2022년에는 400,000달러/일, 2025년에는 450,000달러/일 이상의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함. (Upstream)

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합의… 민노총 총파업서 이탈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 잠정합의하며 파업을 유보했다고 보도됨. 노사는 기본급 8만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지역·복지수당 2만원 인상, 성과급 지급, 격려금 350만원과 상품권 3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알려짐. 8일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가 진행될 예정임. (조선일보)

France's Zephyr & Boree lines up 10-ship order for green container ships

프랑스 Zephyr & Boree가 친환경 피더 컨테이너선 10척 발주를 현대미포조선과 논의 중이라고 보도됨. 1,000TEU급 선박으로 2025년부터 인도될 예정임. 선박은 풍력과 메탄을 하이브리드 엔진을 갖출 계획으로 언급됨. 같은 사이즈의 전통 선박은 2,350만달러 수준이지만, 친환경 기술이 적용되어 선가는 더 비쌀 것으로 언급됨. (Tradewinds)

TotalEnergies nears renegotiation of 17 yard slots for Mozambique LNG

TotalEnergies+4개 선주와 2개 한국 조선소가 연기된 Mozambique LNG 프로젝트 17개 슬롯 재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도됨. 현대삼호중공업에 9개, 삼성중공업에 8개 슬롯이 예약되어있는 상황임. 17척 발주의 최종 결정일은 2023년 7월로 연기, 인도일은 2027~28년으로 연기될 예정임. 슬롯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이 붙어 선가는 약 2.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언급됨. 한편, 한국 조선 3사는 2026년 슬롯은 거의 다 찾고, 2027년 슬롯을 새해에 오픈할 것으로 알려짐. (Tradewinds)

More countries sign up to \$25 billion Nigeria-Morocco pipeline

250억달러규모 나이지리아-모로코 파이프라인이 설치될 5개국의 승인을 얻으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고 보도됨. 7,0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은 나이지리아에서 유럽까지 약 200조큐빅피트를 수송해 러시아 공급분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해당 5개국은 가나,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으로 알려짐. 파이프라인 capacity는 약 3Bcf/d(일일 십억큐빅피트)로 알려짐. (Upstream)

팬오션, 한진칼 지분 5% 취득… “단순 투자 목적”

팬오션이 호반건설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 5%를 1,259억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사들였다고 보도됨. 팬오션은 한진칼 지분 취득 목적에 대해 단순투자라고 밝힘. 이번 주식 취득으로 팬오션은 한진칼 지분 5.8%를 얻었고,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건설 지분은 16.4%에서 11.4%로 줄었다고 알려짐. (조선Biz)